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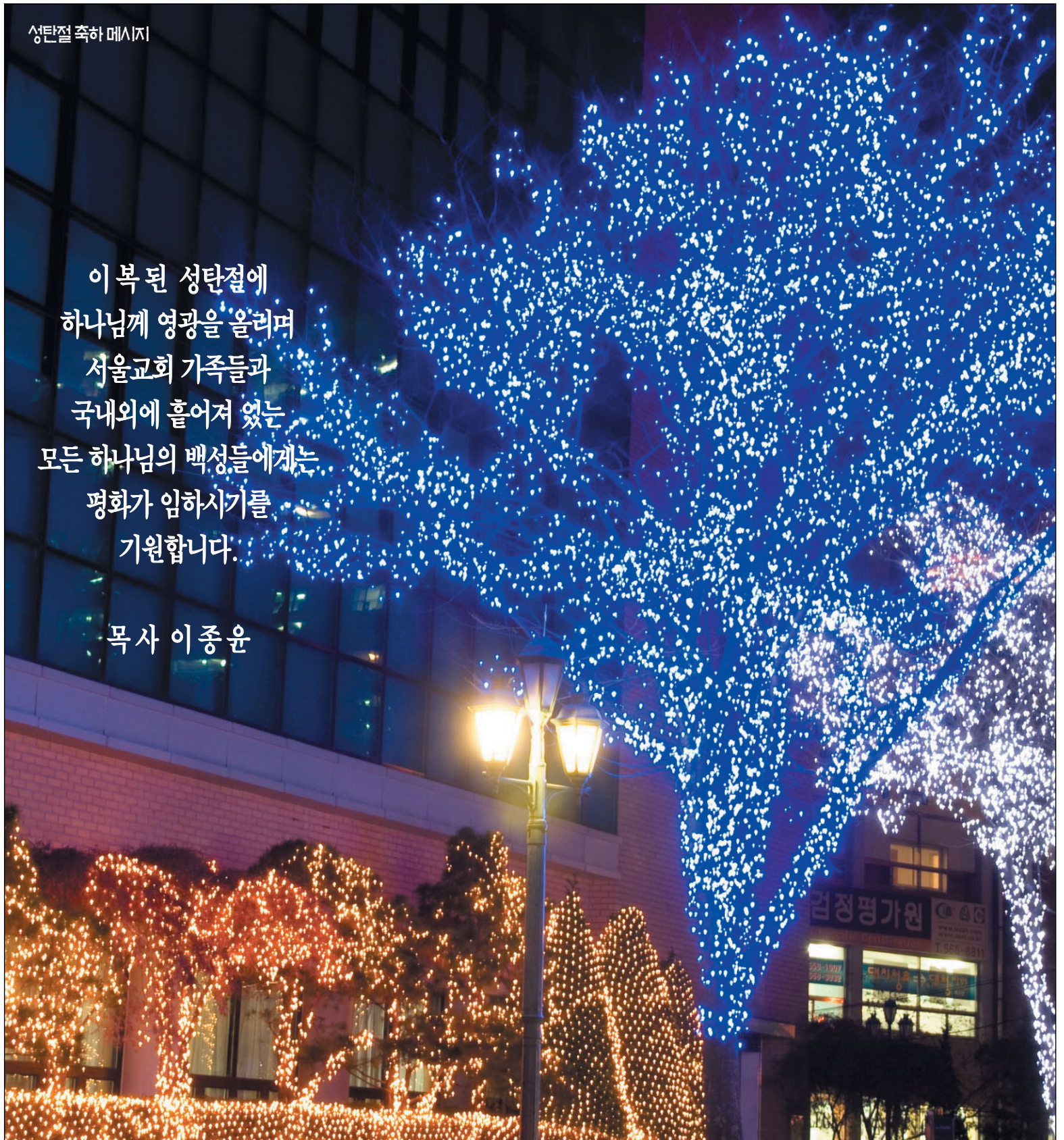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절 축하 메시지

이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서울교회 가족들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 이종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아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교회는 이 기쁜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 1. 성탄전야 행사 : 24일(월) 오후 7시 본당에서

-케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내일(24일)은 저녁 7시부터 본당에서 성탄전야 행사를 갖으며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며 교회학교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과 사랑부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찬양과 율동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특히 이번 성탄전야 행사에는 귀한 손님들이 초청되어 함께 찬양을 드린다. 이들은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었다. 우리교회에는 34명의 합창단이 방문하여 본당에서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드린다.

## 2. 12월25일(화) : 성탄절 행사

새벽송: 성탄절 새벽, 신청 가정에 방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본당에서

성탄 감사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본당

25일(화) 성탄절 새벽은 주님이 나신 첫 소식을 전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교회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신청하신 가정을 방문하여 찬양으로 주님나신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새벽 5시에는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린다.

성탄절 아침,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주님이 나신 성탄 감사예배를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번 드린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절 저녁 가정예배를 드린다.

## 성탄을 이웃과 함께

### 구룡마을 독거노인들에게 쌀 전달하다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지난 17일(월) 교회 인근에 있는 구룡마을을 방문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각각 쌀(백미) 10Kg씩을 전달하여 춥고 외로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구

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매일 쌀 10Kg씩을 전달하여 돕게 된다. 또한 우리교회 성도들 중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담당 교역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 송구영신(送舊迎新) 예배 준비

### -새해 0시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7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대망(大望)의 2008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31일(월) 밤 송년음악회로부터 시작되어 새해 0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송구영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신년 감사헌금도 바친다. 또한 30일 주일에는 교회학교 각 부 졸업식이 있다.

## 노헌상 목사 청빙

### -전도목사로 장석남 목사-

우리교회 당회는 노헌상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고 장석남 목사를 전도목사로 각각 임명했다. 새로 부임한 노헌상 목사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장신대 신대원(M. Div. M. A.)과 미국 리치먼드에 있는 유니온-PSCE 신학대학원(M. A.), 하와이 열방대학

(DTS)에서 수학했다. 1999년 영등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노헌상 목사는 김난희 사모와 상훈, 혜자, 해민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노헌상 목사는 13, 14 교구, 영아부, 유아부, 세례반, 어린이수요예배, 빌립 선교회, 도르가 전도회를 맡는다.

## 외국인 근로자 세례받다

지난 19일(수) 우리교회는 12월 세례식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 3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종일 선교사는 의정부에 위치한 안디옥 열방교회를 전도기지로 삼고 힘쓰고 있다.

## 2008 청지기 수련회

주제: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1월7일(월)-12일(토) 새벽 5시 본당

2008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7일(월)부터 12일(토)까지 6일간 본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시작되며 새벽기도회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 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장로, 권사, 집사 등 중직자와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등 모든 청지기들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접수 시작

우리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비전 2020운동은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민족 복음화 실천 운동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애국애족운동이다. 이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과 자대에 배치된 장병들을 전도하기 위해 진중세례식과 성찬식, 사랑의 운차 운동 등 다양한 군 선교 활동을 펴고 있다.

이러한 비전2020운동에 우리 성도들은 장병 1인 세례경비(5,000원, 2구좌:10,000원)를 후원하며 기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비전 2020운동에 동참할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후원에 동참할 성도들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민족의 75%가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 군입대자 - 군파송 선교사 교육 제도 변경된다

비전 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2008년부터 군입대자 선교사 파송교육제도를 변경한다. 군입대자들의 신앙적 준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주 2시간 교육을 신년부터는 2주 5시간 교육으로 확충한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영적훈련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바란다.

## 전도학교 제 32기생 모집

2008년 1월 13일 개강하여 3월 30일 까지 12주 동안 열리는 제 32기 전도학교는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교실수업,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노방전도 실습을 통하여,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게 된다. 일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지원자는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 : 010-7273-6352



선교지에서 전하는 성탄 축하



김용진 선교사 (아프리카 말라위)

내년 1월 초순에 말라위 정부 당국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기독교교도소 프로젝트의 개시를 알리고 축하하는 일환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한달간에 걸친 하나의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 아프리카 대륙 사이클 선수 가운데 탑 20 위 안에 들어 있는 유망주이고 말라위에서는 단연 넘버 원인 조나단 가이아(Jonathan Kaiya) 라는 22세의 말라위 청년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말라위를 사이클로 왕복 주행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약 2500km의 대 장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와 거의 동갑내기들이 핏절한 가운데 포개져서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복음의 정신으로 바꾸려는 우리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모금행 사까지 곁들여져서 조나단이 패달을 밟는 1km 당 한 국돈 1000원, 달러로 1달러를 기부할 개인과 교회 등 단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매일 120km 정도를 달려서 도착하는 곳에는 이미 미리 선정된 지역교회가 그 나라의 유명 스포츠맨인 조나단을 보기 위해 또 그날 저녁 자국어 치체와어(Chichewa)로 방영되는 "Jesus"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을 초청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곡식', Crops of Love project 를 위한 홍보와 기금모금과 복음전도의 세 가지 목적을 이루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친구인 대학생 한 명이 프로젝트와 DVD player, 천으로 만든 스크린 등을 가지고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인 미니버스로 즐곳 조나단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아무튼 1월 14일 월요일부터 출발하게 되는 행사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나라의 뉴스 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10월 말 제가 오하이오에서 보낸 트레터도 그 무렵이면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라 하루는 연기를 품으며 트레터가 사이클과 함께 달리는 것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는 말라위에서는 처음으로 있

는 것이라 도로변에 많은 사람이 나와 박수를 쳐 줄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전 성도님들께서 공동주최하여 함께 후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광예 선교사 (서아시아)

2007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과 좌절로 얼룩진 곳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아픔과 고통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온 땅에 주의 빛이, 영광이 가득하소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종윤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정미연 집사님과 중보팀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하고 선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곳의 주의 백성들과 저를 위해 사랑과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복된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의 한 모퉁이에서...

Mery Christmas !!!

김종일, 백순미 선교사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역)

Mutlu Noeller! (뭇폴루 노엘렐! - 터키어로 행복한 성탄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눅2:10)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지만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분의 탄생을 감사

하며 축하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 엄청나게 들어 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우리 모두의 섬김과 사랑으로 알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정부-동두천-포천지역에서 교회개척 및 제자화 사역으로 타문화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올 때는 홀로 왔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부디 모두가 예수를 모시고 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풍성한 전도와 질적인 제자화 사역이 크게 일어나며 함께 일할 더 많은 동역자들이 모아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s Greetings



**이항명, 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광야의 유대인 목자들이 들었던 이 좋은 소식을 성도 여러분께도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으며 언어공부와 현지 적응, 그리고 현지인 교회들을 리서치하면서 교회지도자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면서 사역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언어를 잘 배우며 현지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울 교회 파이팅!!



**이경연 목사(706특공 새생명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올립니다.

구주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 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위임 목사님과 서울교회성도님들과 함께 군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진중세례)에 마음을 모으며 열정을 나눈 일입니다.

아직도 이곳 선교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병사)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시대에 이

일을 마무리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2008년 새생명 추수'를 위해 군중,사역자 훈련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군내의 조건들이 약간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비 되어 있는 예배당공사로 추위에 떨며, 무더운 더위에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매우 힘든 사역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욱 더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를 살리는 선교지에서

**조범연 선교사(인도)**

사랑하는 서울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하늘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이 땅위에서는 평화가 가득차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인도의 교회도 추리를 장식하고, 성탄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뾰네에 위치한 Union Biblical Seminary에서 강의와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성경에 기초한 복음주의의 신앙과 신학으로 재무장시켜서 목회현장으로 보내고 또 목회지를 방문하여 교회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조언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1.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강의와 연구사역 그리고 교회상담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인도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잘 돕고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3. 가족들의 적응과 건강 그리고 언어향상을 위해 성탄의 은총이 서울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진은 인도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빔프리 교회에서 건축을 마치고 축사하기 위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캄보디아)**

존경하는 위임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 인사와 더불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군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최고의 목표는 군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 캄보디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12월 임에도 섭시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 저희는 아주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상이군 부대에서는 상이군인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2008년부터 상이군 부대 안에서의 예배를 부대장이 승인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그리운 고국의 겨울을 잠시 마음 속에 접어 두고 저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각 부대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나아 갑니다. 이제 상이군부대 안에서의 예배를 시작으로 각 부대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제도적으로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 갑니다. 부대 안에 공식적인 군인교회가 세워지도록 끊임 없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카자흐스탄)**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 카작에서 안부인사드립니다.

이곳 카작에서도 이 도시와 또 다른 한 마을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2006년 단기선교팀이 선뎠해주는 인형극들을 가지고 인형극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복된 소식이 지구촌 곳곳마다 전해지고, 온 열방이 예수님께 경배드리



며, 온 세계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는 앞으로 20개의 가정교회와 마을교회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작은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일을 위해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이 진리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나라의 지속적인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복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멀리 카작에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롬!



# 성탄절 저녁 가정 예배순서

- 예배를 드리는 기도 . . . . . 어머니
- 신앙고백 . . . . . (사도신경) . . . . . 다함께
- 함께 부르는 찬송 . . . . . 113장 . . . . . 다함께
- 교독문 . . . . .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가족: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도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가족: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인도자:** 오늘날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가족: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인도자:**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가족: 이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인도자:**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족: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 감사기도 . . . . . 다함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래 전 말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함께 부르는 찬송 . . . . . 115장 . . . . . 다함께
- 구약말씀 . . . . . 사9:1-7 . . . . . 가족 중(어른)
- 신약말씀 . . . . . 막10:45 . . . . . 가족 중(어린이)
- 아빠가 읽어주는 성탄절 메시지 . . . . . 아버지
- 축하케익 . . . . . 다같이  
(먼저 점화를 한 후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음 찬양을 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찬양 후 온 가족이 서로 안아주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 주기도 . . . . . 다같이  
(케익을 나누며 가족의 추억이나 성탄절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 아빠가 읽어주는 성탄절 메시지

### 성탄의 신비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 재래 종교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성육(成肉)의 의미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성탄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재래 종교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데 성탄이 지닌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인간이 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고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은 성탄이 지닌 더욱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사람의 종까지 되셨고 거기에 인간을 위한 제물(대속물)이 되신 것이야 말로 몸돌 곳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신비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구체화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성탄의 신비를 우리도 역사 속에서 구체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고 섬김 받을 줄만 알았지 낮아지고 섬길 줄 모르면 성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기는 하지만 성탄의 문외한으로 남지 않고 성탄의 신비를 안고 생활 속에 나타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탄 축하 전야 예배

# Jambo (안녕하세요?)

해맑은 눈동자를 가진 서른 네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케냐에서도 가장 빈곤하다는 고르고초의 아이들입니다. 고르고초는 케냐어로 쓰레기장이라는 말입니다. 고르고초의 아이들은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130원이 없어서 하루를 굶어야 하는 아이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 학교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음악선생님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인 김재창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은 노래를 배우고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케냐의 국립극장과 대통령궁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이 24일 서울교회를 찾아 옵니다.

성탄전야 예배에서 서울교회 교육1국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은, 어디에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라니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먹을것이 없어 배를 곏고, 쓰레기장을 뒤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배고프며 버림받았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전야에 다함께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주명(편집부)



## 에바다부에 오신 예수님

신태중 집사(에바다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일인 성탄절은 서울교회 에바다부에 먼저 찾아오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얇은땀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로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육신이 온전한 자와 육신이 불완전한 자 모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다.

지금은 말 못하는 농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서울교회 에바다부이지만 어느 날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2007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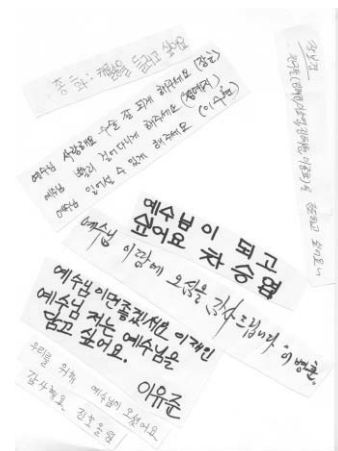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는 26일(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 총동문회 송년하례회를 소집한다.

■ 개업 : 이금남 권사(9교구) 청운 원로고시원 선릉역 1번 출구 T. 555-5312-1

■ 주간식당 봉사 : 당회원(12.23) 제1스데반회(12.30)

■ 금주의 식사 : 김하중성도 손재겸 권사 가정, 손자 김정훈 -범사에 감사하며-

##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사랑부는 지난 주일 분반 공부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다.

###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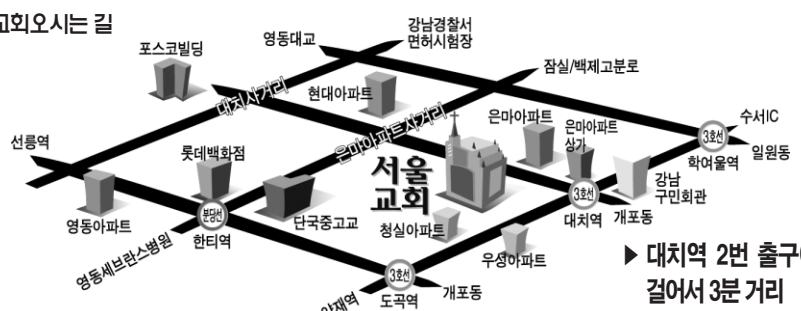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복된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 할 수 있도록
2. 2007년도 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3. 2008년 섬김위원들에게 사명감이 충만하도록
4.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비전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소원을 이루도록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